









#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대고조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

## 당의 숭고한 뜻 현실로 꽃피우며

### 평양 곡산 공장

평양곡산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당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갈 한마음으로 이 사업에 달려붙은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 그리고 교원, 연구사들은 백수십대에 달하는 기계설비와 장치물들을 제작설치할 때 기초하여 모든 생산공정들을 완벽히 위한 노력에 전념하였다. 현대적으로 꾸러지는 생산공정들에 대한 무부하시운전이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금 공정별로 순차적인 시험생산이 한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문제는 오늘 우리 당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의 책임일군들은 곡산공장의 사랑, 파자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립체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특히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계설비의 설계와 제작을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단

계별로 전투과제를 명백히 계획하고 사업분담을 짜고들어 공사속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였다.  
 시안의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현대적인 생산공정과 기계설비들의 설계를 최단기간내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투쟁에 열심을 다하여 모든 생산공정들을 완벽히 위한 노력에 전념하였다. 현대적으로 꾸러지는 생산공정들에 대한 무부하시운전이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금 공정별로 순차적인 시험생산이 한창이다.

인민경제 중요부분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이 결심한 후는 한 단의 철성의 신념을 안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제작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해당 부분의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에 설비제작과제를 명

백히 주고 자체보장사업을 적극 띠어냈다. 여러 공장,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설비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제작할 만만한 투지에 넘쳐 낮과 밤이 따로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일터마다에서 헌신의 수레를 차고갔다.  
 그리하여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설비들을 손색없이 제작하였으며 현지에 나와 그 설치작업도 불이 번쩍 나게 끝내는 위훈을 세웠다.  
 평양자동차기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의 로동자들도 곡산공장의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펼쳐나 조종반과파라과제를 펴내며 모든 공정의 설비제작을 완벽히 수행하였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최첨단수준의 사랑, 파자생산공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달려나온 시안의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해당한 조종반과파라과제를 여러차례의 시험생산을 진행한 성과에 토대하여 마지막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지식인의 본분을 자각

반적설비들을 자동조종할 수 있는 조종프로그램개발을 성과적으로 끝내며 기초하여 현대수평양장공정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계몽비시운전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있다.  
 현대화사업의 많은 몫을 맡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기세를 올리며 마감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여러 대학,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일심으로 새롭게 꾸러지는 생산공정들을 완벽히 하는 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첨단수준에서 풀어나가며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가고 있다. 전반기의 사랑, 파자생산공정의 통합조종반과파라과제를 펴내며 모든 공정의 설비제작을 완벽히 수행하였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최첨단수준의 사랑, 파자생산공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달려나온 시안의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해당한 조종반과파라과제를 여러차례의 시험생산을 진행한 성과에 토대하여 마지막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지식인의 본분을 자각

하고 분발하여 여러 중요설비들의 조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완성함으로써 모든 조종반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대화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 요즘 평양곡산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도 공장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에 정통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고 있다. 공장에서는 시운전이 본격화되는 데 맞게 기술자, 노동자들을 해당 공정들에 담당배치하여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교원, 연구사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조종반과파라과제의 원리와 조작방법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수도시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총정에 떠받들려 최첨단수준의 사랑, 파자생산공정이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울릴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 중공업의 열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본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어야 합니다.》**  
 신의 주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공동시설과 공동주요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중공업의 불길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매월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방장에 땀이 들어설 때 높은 열의밑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물품을 우선적으로 실어나르면서 최첨단조건설장에 높은 화물을 제때에 수송하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관차대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홍성일, 임금선동무를 비롯한 기관차대의 일군들은 기관차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와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승무원들과 같이 기관차를 타고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타일키고 있다.  
 기관차대의 승무원들은 중공업의 불길꽃이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내년 8001호 승무원들이 대고조진선들에 더 많은 화물을 더 빨리 실어나를데 대한 공동주요의 전투적과업을 심장까지 새기고 혁신의 열망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이들은 기관차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꽃이 매월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내년 103호 승무원들은 공구와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해놓고 기관차수리정비를 잔지켜 하는 동시에 운행구간에 대한 사전요청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에 맞는 운전방법을 받아들이는 많은 짐을 실어나르고있다.  
 수리중대의 수리공들은 새로운 공구, 지구를 갖추어 놓고 수리작업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기관차실용상태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기관차대의 《4.15기술혁신동격대》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의 긴밀한 관계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장전 65톤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기관차대수송전사들의 혁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물동수송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안고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원리판에서—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 운반능력을 높이기까지

### 덕천탄광에서

덕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지난 1.4분기와 4월에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굴지의 동력기지에 보내주어 기계설비들의 운전능력을 높여 생산을 높이는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전방을 열어놓았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석탄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모든 일을 결백하게 전개해나가는 탄광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탄광들이 가던 흔적 석탄은 반이차량 생산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와 탄광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채탄장들이 심부에 전가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런 실정에 맞게 올해에 운반능력을 더욱 높일것을 결심한 일군들은 기술혁신을 진행하여 여러 채탄장들과 연결된 사갱은

탄로를 개조하기로 하였다. 즉 사갱의 중간위치를 넓혀서 전양기를 증설하여 전양능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행석탄생산을 보장하며 공사를 하지나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공사를 해제하면 적지 않은 로력과 설비, 자재가 들어야 하였다.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군들은 일군들은 다양한 석탄생산과 함께 공사를 전투적으로 내밀기 위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였다. 일군들은 예비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부족한 자재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발동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땅의 메루를 비롯한 자재들이 마련되었고 여러대의 전양기도 원상대로 복구되었다.

일군들은 공사에 필요한 로력에도 찾아내었다. 전투력 있는 굴진팀을 집중하여 사갱확장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탄광의 양, 정정일군들이 메루이설전투를 벌인다면 생산로에 돌리자고 제안하였다. 이같은 사기일을 보장할수 있었다. 공사를 벌이던 내게 해제가 위한 준비사업이 빈틈없이 갖추어지는것과 때를 맞추어 전

투가 시작되었다.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탄부들은 갱내 석탄운반능력을 더욱 높여 생산을 높는데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탄광의 사갱은 탄로를 훌륭히 개조하였다. 결과 석탄운반능력이 종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으며 갱장상태를 높여 일군들의 생산능력을 높여 줄수 있게 되었다.  
 자재의 힘으로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일군들은 교대별로 갱장장을 타고있어 굴진을 석탄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채탄중대들이 높이 세운 하루 생산계획을 훌륭히 이행하여 수행하고 때때로 주었다. 석탄을 무드기 실은 탄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벨트 콘베이어를 타고 쉬임없이 흘러나온 석탄이 높이 솟는 석탄장의 전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이 창조적열정을 바쳐 마련한 결의안이고,  
 오늘날 탄광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언정에 높은 신념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대고조의 기수가 되어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 불타일키고있다.

본사기자

## 현지 공격전의 불바람 이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이다. 우리는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여기는 강철 생산의 선봉공정을 맡은 천리마강철합기업소 주원료직장에서 일하고있다.

## 면밀한 작전은 성과의 첫걸음

### 와우도구역 신령공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와우도구역 신령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 좋은 공예작품생산 전방을 펼쳐가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 건설의 가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수행할수 있다는것. 빈포기가 현대만 있다고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든다는것 등을 쉽게 알아볼수 있게 직관까지 만들어놓고 계획을 세운것이였다. 이렇게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니 모든 농장원들이 올해에 자기가 해야 할 목표를 똑바로 알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영농공정별계획에 영양단계는 시기와 때 사람들이 하루에 수행하여야 할 과제, 김매기 방법과 회수, 계획 품이 많이는 목화농사와 가을을 할 때의 로력조직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밝히였다.

비밀관리기간의 긴장한 로력을 풀기 위하여 관리위원장은 우선 자기 먼저 잠시간마다 공예작품들의 길을 매면서 한사람이 아침과 저녁 시간을 리용하여 얼마만 한 면의 김매기를 할수 있었는가를 타산해보았다. 그런 다음 관리일군들과 비생산부문을 동원하여 포진을 담당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던것이다.  
 농장일군들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하도록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리고 일군들부터 대중의 앙상에 있었다. 날이 갈수록 성과가 눈에 띄이게 나타났다.

당장전 65톤을 맞는 올해 공예작품생산에 걸기 위한 작전을 무리없이 위해 농장일군들은 청년작업반으로 내 려갔다. 이 작업반에서 목화 농사를 처음으로 하는데다가 그 면적이 다른 작업반보다 늘어났기때문이었다.  
 청년작업반에 내려간 일군들은 작업반에서 세운 목화농사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원래 공예작품농사는 품이 많이 든다. 그런데도부터 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으면 뛰어나가는 공정이 있게 된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휴보산비료와 거름생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비료관리와 가을집이 어르 기까지 세부로 로력과 목화 농사면적을 따져가며 계획을 세운것이다. 예를 들면 목화 한송이에서는 몇몇의 송이를 하나에 한포기에서는 몇송이를 하나에 한포기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다는것. 빈포기가 현대만 있다고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든다는것 등을 쉽게 알아볼수 있게 직관까지 만들어놓고 계획을 세운것이였다. 이렇게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니 모든 농장원들이 올해에 자기가 해야 할 목표를 똑바로 알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영농공정별계획에 영양단계는 시기와 때 사람들이 하루에 수행하여야 할 과제, 김매기 방법과 회수, 계획 품이 많이는 목화농사와 가을을 할 때의 로력조직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밝히였다.

비밀관리기간의 긴장한 로력을 풀기 위하여 관리위원장은 우선 자기 먼저 잠시간마다 공예작품들의 길을 매면서 한사람이 아침과 저녁 시간을 리용하여 얼마만 한 면의 김매기를 할수 있었는가를 타산해보았다. 그런 다음 관리일군들과 비생산부문을 동원하여 포진을 담당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던것이다.  
 농장일군들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하도록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리고 일군들부터 대중의 앙상에 있었다. 날이 갈수록 성과가 눈에 띄이게 나타났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휴보산비료와 거름생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비료관리와 가을집이 어르 기까지 세부로 로력과 목화 농사면적을 따져가며 계획을 세운것이다. 예를 들면 목화 한송이에서는 몇몇의 송이를 하나에 한포기에서는 몇송이를 하나에 한포기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다는것. 빈포기가 현대만 있다고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든다는것 등을 쉽게 알아볼수 있게 직관까지 만들어놓고 계획을 세운것이였다. 이렇게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니 모든 농장원들이 올해에 자기가 해야 할 목표를 똑바로 알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영농공정별계획에 영양단계는 시기와 때 사람들이 하루에 수행하여야 할 과제, 김매기 방법과 회수, 계획 품이 많이는 목화농사와 가을을 할 때의 로력조직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밝히였다.

비밀관리기간의 긴장한 로력을 풀기 위하여 관리위원장은 우선 자기 먼저 잠시간마다 공예작품들의 길을 매면서 한사람이 아침과 저녁 시간을 리용하여 얼마만 한 면의 김매기를 할수 있었는가를 타산해보았다. 그런 다음 관리일군들과 비생산부문을 동원하여 포진을 담당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던것이다.  
 농장일군들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하도록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리고 일군들부터 대중의 앙상에 있었다. 날이 갈수록 성과가 눈에 띄이게 나타났다.

##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서

생산정확도의 승결은 합동모방직공장 구내에 방직기들의 고르로운 동음이 기본축을 울린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의 남모르는 헌신의 수고와 깃들여있고 그 소리는 더욱 정답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 방직기 필수수업 어느 한 부속품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던것을 3대혁명소조원들이 공장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부속품을 스스로 제작완성하였다. 이들이 제작완성한 부속품들이 방직기들에 설치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람

한쪽면에 교반기가 놓여있었기때문이었다.  
 순간 저절로 환성이 나왔다. 이제부터는 교반기로 피복제의 배합비를 맞추며 새로운 용접봉제로 만들어 낼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었다. 다음순간 그 교반기를 가져다놓는 주인공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뜨거웠던 울컥 치밀어올랐다. 저이때가 있었다. 올해에 들어와 보아라온도실 시간감시체계를 새로 받아들이는 일이 세삼스럽게 떠 올랐던것이다. 그때 소조원들이 깨달았을 때에 이르러서도 아니겠는가. 오 혈 권

## 결승선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 합흥모방직공장 3대혁명소조원들

구과정을 통하여 이런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가.  
 우리와 만난 소조책임자 김광현동무는 많은 성과자료들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소조에서 있었던 승승이 출발선으로 된 이야기 기록 먼저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그는 지난날 일들을 감회 깊게 회상하였다. 소조원 박용익, 박옥경동무들이 그 부속품을 자체로 제작해내겠다고 제기하였을 때 무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혁신과제였던 것이였다. 무엇보다도 부속품 재료를 선정하는것이 힘든 문제였다. 이를 위하여 소조

원들은 최신과학기술자료를 탐독하고 전문분야의 학자들을 찾아 대화를 걸기도 하였다. 수십건의 실패 끝에 드디어 부속품이 만들어졌을 때 누구나 그들의 성공을 축하해주었다. 그러던 그들이 평양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축전에 출품했던 그 부속품을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모두가 아연해졌다.  
 그 기술혁신과제는 이미 성공관절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하는 소조원들에게 박용익동무가 말하였다. **《저는 이번 축전에 참가하여 최첨단으로 비약하는 우리**

소조원들 모두가 떨쳐나섰다. 하나의 자료를 놓고 시간가는줄 모르고 열된 토론과 논쟁을 벌리기도 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에 공장기술자들과 며칠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끝내 바라던 날은 오고야말았다.  
 100% 우리의 원료에 기초하면서 소조원들이 부속품에 비하여 원가가 적게 들었는지 수량을 배로 담보할수 있는 부속품을 제작하고야말았던것이다. 소조책임자 김광현동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남긴 여운은 컸다.  
 최첨단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소조원들의 불같은 지향과 확고한 의지를 우리는 결승선이 출발선으로 된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황 금 철

## 언제나 달아있는 손길

한쪽면에 교반기가 놓여있었기때문이었다.  
 순간 저절로 환성이 나왔다. 이제부터는 교반기로 피복제의 배합비를 맞추며 새로운 용접봉제로 만들어 낼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었다. 다음순간 그 교반기를 가져다놓는 주인공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뜨거웠던 울컥 치밀어올랐다. 저이때가 있었다. 올해에 들어와 보아라온도실 시간감시체계를 새로 받아들이는 일이 세삼스럽게 떠 올랐던것이다. 그때 소조원들이 깨달았을 때에 이르러서도 아니겠는가. 오 혈 권

## 시작도 좋고 실천도 좋다

활주군 구포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장전 65톤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성과로 빛내어갈 발라는 임무를 안고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조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물려받은 지도밑에 모든 기술혁신과제들을 우리 당이 제시한 유구한 전통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지향하였다.  
 대고조시대의 3대혁명전위대가 높이 세운 목표수행의 첫걸음을 끄집어내려는 소조원들은 지금 성공의 그날을 위해 지칠줄 모르는 열의를 바쳐가고 있다.  
 우리의 원료에 의한 새로

은 생활농작업정전과 농고 보아도 그렇다.  
 소조원들은 지난 시기의 경험을 살려 화학농업을 전혀 쉬지 않은 순수한 생활농업을 가지고 비종자처리하는 물려받은 지향과 확고한 의지를 우리는 결승선이 출발선으로 된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김 일 권



# 네 쌍둥이는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숙원군 운영리인민병원의 의사 김현희동무의 집까지는 읍에서 한 시오리되는 듯 하였다.

눈발처럼 난 길을 따라 차를 달리느라니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아담한 문화주택마을들이 보였다.

몇분 지나서였다. 동행한 군의 한 녀성일군이 우리를 돌아보며 손으로 가리켰다.

《바로 저 집입니다.》

차장터로 길가에 우뚝 서 있는 한채의 살림집이 보였다. 이 아근에서는 보기 드문 2층집이었다.

《저기서 김현희동무가 삽니다.》

《2층 두세대짜리입니까?》

《아니, 2층 한세대짜리입니다.》

잠시후 우리는 2층집에 당도하였다. 마당에 있던 명명인들이 요란히 쾅쾅 제 먼저 집주인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리었다.

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녀성이 현판에서 트랙으로 내려왔다.

보내 김현희동무가 틀림없었다. 그의 얼굴이 출판보다도 물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진 것이 17년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색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우릴 모르시겠습니까?》

녀인은 우리 말에 기어를 좀 더듬다가 무릎을 탁 쳤다.

《예—그때 평양산원에서 만났던...》

그의 눈시울이 금시 붉어졌다. 그때 일이 생각난 모양이었다.

그때 정말 그도 울고 우리도 울고 는 나라가 울었다. 경사도 경사였거니와 그 경사에 이어진 크나큰 사랑 때문이었다.

1993년, 바로 그해 33살 난 김현희동무는 온 나라가

아는 어머니로 되었다.

그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었다. 네 쌍둥이를 낳아서였다. 그것도 아들만 넷.

그는 불시에 영웅처럼 떠날 줄을 알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쌍둥이를 낳으면 남으면 그처럼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로 불리우고 모성영웅으로까지 된다. 인간적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 내 조국이 아닌가!

위대 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숙원군의 김현희동무가 네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곧 애비수령님께 보고되었다.

쌍둥이를, 네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두구보다 기뻐하시었다. 우리 수령님!

그때 애비수령님께서 갖 태어난 네 쌍둥이에게 보내주신 은상도와 옷감, 내의, 모모, 포단건을 비롯한 사랑의 선물과 지기에게 보내주신 김반지, 꿀, 미역 등을 받아안고 김현희동무는 끝없이 흐느껴울었다. 네 쌍둥이를 받아낸 평양산원의 의사, 간호원들도 어깨를 들먹이었고 우리 기자들도 취재수첩에 눈물을 떨구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네 쌍둥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들려주신 하례같은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온 나라 인민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 집도 그때 나라에서 지어준 집입니다.》

김현희동무는 2층에 배란다가 주련이 달린 콤팩한 자기 집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보며 말하였다.

《살림방만 해도 6칸, 모두 해서 열두칸입니다.》

마침 김현희동무의 집에 찾아왔던 운영리당위원회 부비서가 자랑삼아 덧붙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치료실까지 갖추어놓은 바로 이 집에서 김현희동무는 네 쌍둥이달달의 사자까지 《두고》 자식들을 낳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은 6살때까지 애육원에서 국가가 맡아 키웠고 그후에는 집에 와서 컸다.

《산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는 당당히 사만도 자그만치 18명이나 되었는데. 그때 애비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애들에게 먹이라고 80kg에 달하는 줄인것까지 보내주시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도 다 그런 사랑의 선물입니다.》

김현희동무는 우리 집은 그때 하나의 사랑의 《진판관》이라고 하면서 네 쌍둥이와 자기 받은 수많은 선물들의 명세를 내놓았다.

네 쌍둥이는 그렇게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온 품에서 자랐다.

그들 말이 집까지 찾아온 교원의 손을 잡고 소학교에 입학하던 날에는 온 마을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손을 흔들어주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학교에 가는 자재들을 보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었겠소.》

한 로인의 이 말에 사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그처럼 어렵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또 배고파할새라, 추위할새라 제일 좋은 흰쌀과 먹는기를, 갖가지 부식물에 영양식품까지 보내주고 철따

라 웃으며 신발을 안겨주며 나라에서 애지중지 키운 네 쌍둥이.

네 쌍둥이의 그 행복한 모습은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이 나라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고난의 그 나날에도 학교들에서는 세 시간을 수업종이 울렸고 콩유유를 실은 차들은 아이들을 찾아 매일 어김없이 공장을 나섰다. 우리 장군님께서서 청철의 세찬 눈보라를 헤치실 때 이 땅의 아이들은 교실의 칠판앞에서 발돋움하며 숙제문제를 풀었고 시험지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어넣었다.

시련을 헤치는 조국의 품에서 성장한 세대.

학교로 달려온 아버지, 어머니들이 교실의 문가에 서서 콩유유를 마시는 자기를 보며 눈물을 머금었다. 나이보다 일찍 깨달은 자만 세대.

어떤 불구름도 닿지 못할 사랑의 령마루에서 우리 장군님께서서 높이에서 받들어 올리시어 보살피고 키우신 내 나라의 미래!

수천의 네 쌍둥이도 그 속에 있었다.

지난 3월 그들은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대학들에서 그들을 기다렸고 보람찬 일터들에서 그들을 불렀다.

그럼 교문을 나서 네 쌍둥이는 어디로 갔는가.

《애들이 큰걸 보자고 이렇게 오셨는데는 내 한결 늦었군요. 며칠전에 갔더라면 좋았을걸.》

김현희동무는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사진 몇장을 내놓았다. 얼굴생김이 똑같은 네명의

끝끝한 청년들이 우리를 마주 보았다.

모두가 군복을 입고있었다. 빨간 령장뿔에 붙여놓은 붉게 물든듯 한 신임병사들...

《조국보위의 길에 섰구만요.》

우리의 말에 김현희동무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며칠전에 입대하였습니까.》

그 길에 바로 애들이 세상에 날적에 그어진 인생길이 아닌 나.》

우리는 다시 17년전 일을 추억하게 되었다.

그때 네 쌍둥이의 이름을 뜻이 깊으면서도 특이하게 짓는 라 부모들도 산원의로일꾼들도 마음사람들도 고심하였다.

여러날의 한결에 마침내 모두가 좋다고 한 이름이 《백조성》, 《백국성》, 《백보성》, 《백우성》이다. 그 이름들의 가운데글자를 합치면 《조국보위》가 된다.

네 쌍둥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 백기성동무도, 어머니 김현희동무도 자식들의 장래를 조국보위와 련시켰다. 이 제로, 이 사회주의자 자식들과 자기들의 목숨이도 운명이고 앞날이 아니었다.

마을의 자랑이고 군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기도 한 네 쌍둥이가 어엿하게 자라 부모들의 뜻이고 자기들의 희망인 조국보위의 길에 나설 때 온 군이 축하해주었다.

모교의 교원들과 학생들, 군 당청일부서를 비롯한 군인의 일꾼들과 리인의 일꾼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네 쌍둥이와 함께 그들의 인민군대입대를 기념하여 사진들을 찍었다.

《수령님께서서 위촉하시어 우리를 바란다.》

네 쌍둥이는 군 당청일부서가 자기들을 준 수첩에 적어준 이런 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본사기자 박 철

김현희동무는 자식들의 어깨에 배낭을 매워주며 말하였다. 《어머니는 오늘을 무척 기다려왔다. 너희들의 아버지도 제대군인이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거라.》

네 쌍둥이의 외할머니는 손자들에게 몇십번이고 해운 이야기들을 다시 하였다.

《해방전 그 세월에는 쌍둥이가 다 뒀다. 한복술도 부지하기 어려운 판에, 쌍둥이가 나면 집안이 녹는다고 하던지 피눈물을 뿌리며 거적에 말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에 나자 부모보다 먼저 나라가 떠날 줄도 알고 훌륭한 집에서 온갖 혜택을 받으며 자라났구나. 내 두구 좋다고 한 이름이 《백조성》, 《백국성》, 《백보성》, 《백우성》이다. 그 이름들의 가운데글자를 합치면 《조국보위》가 된다.

네 쌍둥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 백기성동무도, 어머니 김현희동무도 자식들의 장래를 조국보위와 련시켰다. 이 제로, 이 사회주의자 자식들과 자기들의 목숨이도 운명이고 앞날이 아니었다.

마을의 자랑이고 군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기도 한 네 쌍둥이가 어엿하게 자라 부모들의 뜻이고 자기들의 희망인 조국보위의 길에 나설 때 온 군이 축하해주었다.

모교의 교원들과 학생들, 군 당청일부서를 비롯한 군인의 일꾼들과 리인의 일꾼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네 쌍둥이와 함께 그들의 인민군대입대를 기념하여 사진들을 찍었다.

《수령님께서서 위촉하시어 우리를 바란다.》

네 쌍둥이는 군 당청일부서가 자기들을 준 수첩에 적어준 이런 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본사기자 박 철

물소리, 새소리, 숲의 설레임소리... 그것만이 아니었다. 꽃향기는 또 얼마나 그윽한가. 명산의 청신한 공기에 실려오는 꽃향기에서도 제일 이채로운 것은 두봉화의 향기였다. 상원동어귀에서부터 그려보던 묘향산 두봉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우리는 불명대에 이르러 마침내 볼수 있게 되었다.

향산군 읍거리에서도 보았던 두봉화를 하늘높이 솟은 묘향산에서 보게 되니 그 모습 더욱 품고 그 향기 더욱 진한듯 하였다.

두봉화, 묘향산의 두봉화! 사연도 깊고 향기도 목메이는 꽃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서부터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이 생기거다.》

묘향산의 두봉화는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꽃중의 하나이다. 묘향산의 두봉화는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꽃이다.

수십년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명산인 묘향산에 인민들을 위한 등산로정을 개척하기 위하여 몸소 그 개척자가 되셨다. 장군님께서서는 길 아닌 길을 헤치시며 인민들이 명산의 경치를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등산길을 정비하시였으며 자신께서 땀 흘리시며 내신 그 길을 밟아 인편리하게 오르내릴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고 한칸도 설치하도록 해주셨다. 바로 그러한 날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불명대를 찾으면서 만발한 두봉화를 보시고 아름답게 꾸며고 못내 기뻐하시며 등산길에

서 꽃을 보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셨다.

일찍이 묘향산의 두봉화를 보아주시며 꽃이 참 곱고, 앞으로 여기에 꽃을 더 많이 심으라고 하신 애비수령님의 그날의 자욱을 새겨주며 아름답게 꾸며낸 두봉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이 깊은 산중에까지 심으신 고귀한 뜻을 뿌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못 잊어 만물을 이룬 묘향산의 두봉화.

우리 수령님께서서와 우리 장군님께서서 곱다고 하실 때 더욱더 붉어진 꽃인가, 절세의 위인들께서 보아주시는 행복의 그날을 못 잊어 향기도 진하게 풍기는 꽃인가 묘향산의 두봉화는 이제껏에는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부드럽고 청아한 모습이다.

두봉화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일지는 뿔기나무의 한가지로서 보라빛이 도는 붉은 꽃이 피며 꽃잎은 만첩이다. 꽃이 아름답고 오래도록 피어오르고, 공원 등에 많이 심으며 생육리에도 한다.

묘향산의 불명대에 우리 를 지어 만발한 두봉화중에는 애비수령님께서서 보내주신 600여년 자란 두봉화가 있다. 이 두봉화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희귀한 꽃나무로서 높이는 2m이며 5월초에 꽃이 피어오른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묘향산을 찾고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이곳의 유명한 두봉화를 보기 위하여 상원동을 두번이던 탐승하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다. 우리 인민들도, 외국의 관광객들도 두봉화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묘향산의 두봉화에 깃든 절세의 위인들의 열렬한 조국애,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새겨안고있다.

본사기자 리 승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을 찾아

총련일군대표단 경모의 정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6일 총련일군 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총련의 강화발전과 불멸의 공헌을 하신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의 회담이 26일 평양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영일 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상대측에서 분룡 캣타니 당중앙위원회

## 경희극 《산울림》 사리원에서 공연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공연이 사리원에서 25일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황해북도예술극장에서 시작한 첫 공연을 도내 당, 정권, 행정조직기관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관람하였다.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알곡생산을 높이며 사회주의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력원으로 꾸리기 위해 펼쳐나선 어느 한 산간지대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출연자들은 조국의 특성명령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친 전세대신구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숭고한 리상, 불굴의 투쟁의지를 명랑한 웃음과 재치있는 해학으로 잘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을 끝없이 감동시켰다.

관람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신 경희극 《산울림》이야말로 근 50년이 되는 오늘날도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을 계속혁신으로 고무추동하는 훌륭한 교본이라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나와와 성격도 지식정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시대의 거

## 우리 《선생님》

연주소 기사 오정철동무이다.

언제나와 같이 밝은 웃음 지으며 집에 들어서서는 그를 바라보는 영예군인 현철동무의 눈가에 고마움이 이른다.

벌써 몇년째 이젠. 당의 은정속에 대학 공부를 하게 된 자기의 학습방향을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정철동무가 이런 길을 걷는것은.

오늘도 그는 당의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한 영예군인을 위해 새로 나온 책들이며 보약들을 들고 또다시 그의 집을 찾아왔다.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고싶어 남

편과 함께 왔다는 오정철동무의 안내 리복실동무의 얼굴에도 따뜻한 정이 넘쳐흐른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영예군인의 가정에 복동이가 태어났다고 남먼저 달려와 애기웃이며 산모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식료품들을 안겨준 그들,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영예군인의 생일날에도 온 가족이 찾아와 혁명적방담과 열정을 더해준던 미더운 부부.

불편없이 공부할 잘라하고 삼촌처럼 마려주던 날은 언제이며 새옷과 컴퓨터, 학용품과 참고서적들을 안겨주며 군사부수직들의 그 정성으로 살라고 고무해준 고마운 《선생님》.

오정철동무의 그러한 헌신의 나날을 더듬어보는 영예군인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오른다.

이런 현철우, 훌륭한 길동무들이 곁에 있어 우리 영예군인들에게 계속 쫓겨가는 혁명의 뜻은 더욱 아름답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순애

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26일 비행기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 뜨거운 공장터를 지니고

신천 옷공장 종업원들

워생문화환경이 깨끗한 단위들 중의 하나로 소문난 이 공장을 찾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녀성들의 손으로 했습시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공장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던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선진시대적의 맞이 내게 일터의 워생문화환경을 더 잘 꾸릴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일부 종업원들속에서는 우리 녀성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 공장당조직에서는 그들에게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었다.

우리는 얼마전 신천군에서

## 대오의 앞장

기상수문국 기상수문관측계기공장 가공작업반 반장 김광조동무는 대오의 기수가 되어 이신작업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자로 불리우고 있다.

공장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30여년을 순결한 방향으로 공장의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한 김광조동무, 작업반이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이름떨치고있는데는 그의 성실한 탐과 노력이 깃들여있다.

그는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혁명적근신정신으로 부조진 수행하였으며 자체의 기

## 은혜로운 사랑, 넘치는 기쁨

강계닭내포국집을 찾아서

도 계단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천천히 계층을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에는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대리석을 깔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람들이 오르내리다가 미끄러워 넘어질수 있었는데 이렇게 화강석으로 계단을 만들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아주 잘하였다고 치하해주셨다.

그 무엇을 만나 보시어도 인민들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되새겨져 우리는 식당의 화강석계단을 씀보았다.

로인들이 오르내리기에 편편하고 장난이 심한 어린이들이 오르내리기에 안전한 화강석계단.

대리석계단처럼 번쩍거리는 양아도 거기에서는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빛나지는것이었던가.

은정깊은 화강석계단을 올라 식당에 들어서면 우리는 구수하고 향긋한 닭내포국냄새에 묻히었다.

우리는 먼저 주방에 들러서

##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쁨

로농룡의원 강혜순

슬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이 나날 그 수습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에 이바지하였으며 수습명의 기능공들을 키워왔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내부에 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생산에 필요한 많은 자재와 공구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였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그를 가리켜 《실천력이 강한 작업원》, 《불같은 인간》이라고 존경담아 부르고 있다.



## 추경한 식탁을 물린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르데우에 올라선다. 강계닭의 창조자, 세시대의 용감한 개척자라고 높이 불려주시며 강계사람들이 유혹하고 명망한 생활을 누리도록 훌륭한 닭공장도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번모된 강계사람들의 선경지를 부감하며 더 아름답게 변모될 강계닭의 매일을 그려본다.

참으로 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대에 이르기까지, 집기류로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강계닭내포국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이 차넘치는 집이다. 들어서서 첫걸음부터 나서는 걸음까지 강계닭의 매일을 그려본다.

어찌 이 식당뿐인가. 인민이 사랑하는 곳, 인민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 그러한 은정이 차넘치는 내 조국이 아니인가.

사랑의 계단을 내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겨울이 지나 인공물에 오르면 내려버린 푸른 합각지붕을 떠내고 장자강물결위에 인민의 웃음 그칠새없이 이어나는 강계닭내포국집이 더욱 정갈해져 갔다. 마치도 더 좋은 매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행복의 깃발이었다.

오 은 별



# 『대답할 것이다』

## 《천안》 호사건으로 최대의 리득을 보는자들은 누구인가

《천안》 호침몰사건에 관한 남조선피해국회의 날조된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미국이 앞장서서 세상을 소란케 하고 있다.

어떤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로부터 최대의 리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범죄수사의 초보적인 리치이다.

남조선해군함선 《천안》호가 조선선사해에서 두동강이 나 침몰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과 그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이 그 첫째리에는 미국이 있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2012년경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세에 모든것을 집중하고 있다.

평화 발전의 전제라는 상식적인 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 있어서 오늘 평화로운 대외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 할때 대외 대내외 대응을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가 함선침몰사건으로 《내부결속》과 같은 정치적 《리득》을 얻는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제도의 《붕괴》만을 바라던 나머지 주관적용담과 현실을 착각하게 되었거나 조선이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덮어버리고 우리를 모해하려는자들의 무리한 논리적비약이고 생색지이다.

우리가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얻을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은 리성 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리해 할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북조선위협론》을 크게 떠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맹국》들을 단단히 후려잡고 대국들을 견제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공세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 일의의 기회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오바마행정부부는 남조선주둔 미군에 조선전쟁에 대비한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는 등 전세를 격화시켜 지역에 대한 무역증가와 군사적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조종하에 남조선피해국과

일본당국은 조종관계발전에 대한 양심을 로골적으로 터뜨리고 우리 주변나라들에 허황하게 그지없는 《조사결과》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반공학구암살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후엔마미군비행장시설문제에서 미국의 압력에 눌려 위 오기과와현 주민들을 속여 넘길 기회를 찾던 일본정부가 이번 《안보불안》을 떠들면서 미국의 요구를 실패 들어주었다.

미국은 이에 환승을 지르고 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24일 부는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미군후엔마비행장의 시설지를 캠프 수와브 연안지역으로 정한것은 미국의 승리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게재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도 여기서 한몫 단단히 보고 있다.

《조사결과》와 《대국인담화》를 《6.2지정선기》를 코앞에 두고 순차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선거에서 토막국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도록 남조선사회에 사상 류례없는 반공학구적대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진

보세력을 숙청하여 우익보수집단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일대 정치레조감바나야를 개시하였다.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결판내고 북남관계를 6.15시대이전으로 되돌려놓았으며 조선반도정세가 순식간에 전쟁국면에 들어서게 함으로써 삼정의 눈에 더욱 들고 집권유지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건과 추구가 약하여 46명의 피의군사병들의 희생의 대가로 가장 큰 리익을 보고있는 사실은 《북외위공격성》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지적구이라는데 대한 반증으로 된다.

국제사회는 《천안》 호사건이 21세기의 전략적중심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군사환경을 저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해 미국이 남조선피해국을 내세워 꾸미던 아시아안 《9.11사건》으로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침략책 《반테로전》의 본격적개시를 예고하고 있다는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 최악의 반공화국도발, 로골적인 전쟁선언

해군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피해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드디어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보도리본과 같이 지난 24일 리명박역도는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그 무는 《대국인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서 역도는 《북의 군사도발》이니, 《단호한 대처》니 뉘니 하고 고이대면서 우리선박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위권》발동,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응조치》라는것을 들고나왔다. 한편 반공적으로 우리에게 《사과》와 《판면차벌》 따위를 요구하였는가 하면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과 《전력강화》, 미국의 《련방위위태세공고화》를 떠들었다. 이어 피의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의 우두머리들은 합동기자회견이라는것을 열고 후속조치로서 키고 외세와의 정치군사적약항으로 우리를 봉쇄할것이라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리명박패당의 이런 무분별한 망동은 북남관계사상 류례도 없거니와 그 흉악한 목적으로 때 때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최대최악의 반공화국도발이며 로골적인 전쟁선언이다.

우리가 이미 루차 천명한바와 같이 피의군 함선침몰사건은 《북의 소행》으로 풀이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조사결과》를 발표하는것은 북을 지른자들이 불이 하는 격의 파멸적인 토막국이다. 피의자들이 저들의 《조사결과》가 정말 한결의 의혹도 없었다면 우리 국방위원회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합선침몰사건 《조사결과》라는것이 우리를 억지로 사건과 결부시켜 반공화국 암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불순하고 유치한 남조종미끼라는것이 이미 세계의 면전에서 날 날이 폭로되었다.

역적패당이 우리더러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고이대고있는데 진짜 대가를 치르고 징벌을 받아야 할 특급범죄자는 그처럼 한 사건을 부기하고 모략과 남조종 등공을 합부로 범죄시하며 북남관계를 종지박산낸 그들자신이다. 그런데도 피의들이 끝끝내 사

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대결판기를 부리는것은 실로 날강도적인 행위가 아닐수 없다.

피의들이 떠벌이는 우리에게 대한 《제제》강화는 이미 전쟁을 작정한자들이나 할수 있는 무분별한짓이다. 지금 피의들은 함선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외세와의 약항으로 반공화국 《제제》소동을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 목적이 미, 일상정들과 함께 국제적구모에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적극 고취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북침전쟁을 도발하자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반역패당이 함선침몰사건을 북남관계파괴와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는것은 현실로 확정되고 있다.

리명박패당은 은 거머의 항의규판과 우리의 거둬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 《공조》에 의한 반공화국압살이라는 극히 무모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감히 전면대결과 《전쟁불사》의 도전장을 던지었다. 피의들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엄포도 던져준 조건에서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응당 무자비하고 단호한것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더더욱 명백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여 이미 천명한대로 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전면철폐의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리명박인담과 같은 대결미치판기들에게는 우리의 자비와 인내심이 필요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우리는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다.

피의들이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엇도 얻어보려고 타산하는것은 오산이다. 우리의 존엄과 자존심을 건드리는것은 그가 누구이든 멸적의 징벌을 면할수 없다.

만일 역적패당이 우리의 의지를 오만하고 계속 분별없이 날뛰다면 무서운 피의적효과가 초래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피의들이 추구하는 범죄적야망은 역적패당의 야성을 무자비하게 짓밟는정의 성전 앞에 산산이 부서져나가게 될것이다.

최 철 순

## 《어뢰 폭발설》은 량무니없는 조작이다

남조선전문가들은 피의함선침몰사건이 일어난 초기부터 원인규명의 결정적단서로 되는 것은 함선이 침몰될 당시 떨어진 가스스타린실이라고 주장 하였었다. 그런데 피의국방부는 가스스타린실이 가라앉은 위치를 전혀 알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우겼다. 문제는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가스스타린실이 인양되었는데 그처럼 중요한 가스스타린실의 조사를 의연하고 피의당국이 《조사결과》라는것을 서둘러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각계는 사건해명의 핵심증거로 되는 가스스타린실이 뒤늦게야 발견되었다가 그것마저 조사하지 않고 당국이 급기야 《조사결과》를 발표해 대대 술한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얼마전 남조선의 《노컷뉴스》 방송이 사건조사에 동원

되었던 해난구조 및 인양전문가와 진행한 대담내용을 발표 한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일문일담내용을 요약하여 소개 한다.

사회자: 군부당국이 폭발로 류실했다고 밝힌 가스스타린실이 발견되어 침몰원인을 밝힐 새 로 핵심증거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 있다.

전문가: 가스스타린은 배추 진장치중의 일부로서 중량이 한 40~50t 나간다. 이번 에 발견된 침몰함선의 가스스타린은 배가 두동강날 때 떨어져 나간것이다.

사회자: 그렇게 큰 물체가 왜 이제야 발견된 것인가?

전문가: 원래 배가 두동강날 자리에서 초기부터 있었던것 이고 나도 그에 대해 알고있었는데 당국에서 구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것 같다.

사회자: 그러니 군부

초기부터 알고있었다는것이 아닌가?

전문가: 물론이다. 군부도 알고있었다.

사회자: 그런데 사고원인을 밝혀줄 것이라고 보는 그런 핵심 증거를 왜 이제야 끌어냈는 거냐?

전문가: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글썩, 어찌된건지 그들의 속내를 알수 있겠는가. ...

사회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바로 아메에서 어뢰가 폭발한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스타린실은 상당히 핵심적인 증거물이겠는데?

전문가: 물론이다. 사실 가스스타린실이 떨어진것은 폭발의 증거가 아니라 자연적으 로 함머리와 함외피가 무게불균형으로 부러지면서 자력이 무거기때문에 거기에 붙어있을 수 없어 그렇게 된것이다. 말하자면 자체절단의 한 과정이

었지 폭발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가스스타린실을 인차 건져냈으면 사고원인을 제적 알아낼수 있었겠는데?

전문가: 처음 《민군합동조사단》에서는 절단면이 너덜너덜하고 뜰거져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폭발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사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최초로 인한 충격으로 함께 가워로 부러진 증거이다.

사회자: 결국은 일단 가스스타린실을 건져놓으면 육안으로도 파악이, 아니나 하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는 말인가?

전문가: 물론 함선이 침몰한 곳에 는 압초가 없다. 다른 곳에서 압초에 걸렸다가 빠져나와 5~7km 정도 표류하다 침몰하였다. ...

피의해군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가 남조라는것은 이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허 열 민

## 피의당국의 《조사결과》를 배격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전국목회자회의 평화실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불교사회개혁부단》을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24일 기자회견

을 가지고 《천안》 호침몰사건에 대한 피의당국의 《조사결과》를 배격하였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의 구성과 《조사》 시기부터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만장약된 증오와 복수심

역적패당이 미처도 단호하지 않아 버렸다. 그래서 안전이 어떻게 자들의 구명행이 에 그리고 깊숙이 머리를 들이밀수가 있는가.

추악한 대결야망으로부터 꾸미던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라는것을 가지고 전쟁을 부르짖으며 미친듯이 발광하는 피의호전파들의 망동을 지켜보는 우리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불라는 적개심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우리의 그 피끓는 의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방위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에 다 담겨져 있다. 가슴이 막 후련하다.

지금 보수세당이 그따위 불순한 자작곡으로 감히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며 대결전쟁소동에 광분하고있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다.

피의들이 미, 일상전과 야합하여 그 무슨 《응징》 따위를 떠들고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한갓 칼밥에 개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역적패당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것은 혁명의 수뇌부부터 일심단결하여 침략자들을 일거에 격멸소탕하고 이 땅에 보란듯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려는 우리 인민의 열의와 각오만 백배해줄뿐이다.

그 신념과 배짱으로 만장약된 우리 전력공업부문 일군들은 역적패당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만장약된 전력증산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려다.

우리를 너무도 모르고 헤메이는자들에게 차제일것은 죽음뿐이다.

전력공업성 부상 김 만 수

## 역적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지금 남조선보수세당은 북남관계를 종지박산내고도 모자라 조선반도정세를 일족독박의 초진장상태로 몰아가며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병을 몰아오려고 발광하고 있다. 함선침몰사건이라는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토막국을 조작하면서까지 외세와 야합하여 준엄한 우리 공화국을 모해, 압살하기 위해 날뛰는 보수세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의 우역, 반로일대결집단이 분명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외세와 야합하여 준엄한 우리 공화국을 모해, 압살하기 위해 날뛰는 보수세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의 우역, 반로일대결집단이 분명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외세와 야합하여 준엄한 우리 공화국을 모해, 압살하기 위해 날뛰는 보수세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의 우역, 반로일대결집단이 분명하다.

## 반공화국전쟁책동을 강력히 규탄

김용술 우크라이나고려인 통일연합회 (우크라이나고려인) 위원장이 21일 《우리 민족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청산할것이다》 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최근 남조선피해국의 《천안》 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역적패당이 공화국을 의외공격에 그 원인이 있는것처럼 남조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내의여론을 오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역적패당이 그 무슨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며 국제사회를 통한 《제제》까지 실행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담화는 규탄하였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온갖 정치적음모와 모략을 일삼으면서 함선침몰사건을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리용하고 있다고 단회하였다.

## 반공화국전쟁책동을 강력히 규탄

지금 역적패당의 불순한 음모가 공화국에 대한 분별없는 행동으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담화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의안을 받아들이고 그앞에 함선침몰과 관련한 정확한 물증을 사소한 의혹도 없이 내놓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담화는 리명박역적패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남조선역적패당이 공화국을 모략중상하는 도발적인 피의해군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피의당국이 《북의 소행》이니 뉘니 하며 사태를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피의당국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공화국을 《힘의자》로 지목해놓고 그에 맞게 조사를 유도하였다고 밝혔다.

리명박역적패당이 터무니없는 《조사결과》를 내내며 정세를 전쟁지경으로 몰아가고있는것은 그들이 집권초기부터 반공화국, 사태대국정세를 추구해온데로부터 초래된 정치, 경제적위에서 벗어

##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확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 어린이들을 통해 본 판이한 두 제도

위 대한 병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살기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데가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가정생활의 단면에도 해당사회의 풍조와 풍리, 전도가 비친다.

어린이, 조용히 외워만 보아도 기쁨이 가슴에 차오르는 이 말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들이 꽃피어나는것인가.

매칠전 저녁 우리는 대중강구역 문수1동에 사는 한 평범한 사무원가정에 들린적이 있었다. 그 가정에는 평양문수1유치원에 다니는 5살 난 딸애가 있었는데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한 그 애의 부모들은 자기만한 수첩을 펼쳐놓고 유쾌히 웃고있었다. 그 수첩은 어느 부모들과 유익한교양원사이 매일 오고가는 교양수첩이었다.

5월 5일.

교양원: 《어제는 주미주미하던 소항이가 오늘은 소리로 사정을 척척하게 하였습니. 복제발식으로 담을 키워주며 복

습시킨 부모들의 노력이 알찼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소항이가 오늘 세번째 꽃피음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처녀이지만 한 킨로는 덜덜떨고 태서 그러나 선생님의 방조를 바랍니다. 오늘밤 선생님의 부탁대로 수자공부를 복습시켰습니다. 제 가정폭력, 어린이학대, 이것은 자본주의나라 어린이들의 운명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남아다 신문지면에 가정폭력, 어린이학대, 이 것은 자본주의나라 어린이들의 운명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남아다 신문지면에 가정폭력, 어린이학대, 이 것은 자본주의나라 어린이들의 운명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남아다 신문지면에 가정폭력, 어린이학대, 이 것은 자본주의나라 어린이들의 운명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나리의 《왕》으로 떠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의 활기가 넘치고 습에서 사람들은 조국의 밝은 태양을 그려보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새기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그런 모습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볼수 있는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어린이학대, 이것은 자본주의나라 어린이들의 운명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남아다 신문지면에 가정폭력, 어린이학대, 이 것은 자본주의나라 어린이들의 운명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남아다 신문지면에 가정폭력, 어린이학대, 이 것은 자본주의나라 어린이들의 운명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단천시 직결협동농장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직결협에서 강력한 확산행진자로 가지고 계급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직결협에 기여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은 당원들과 애국자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불쌍처럼 다루면서 그들에게 별 집집없는 배설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기막힌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즉 자본주의사회에서 어찌 어린이들의 견전하고 훌륭한 성장을 바랄수 있었는가. 생활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조차 항시적으로 폭력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란 많은 세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교양을 가지고 사회의 우한거려인 폭력배들로 되었고있는 것이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가정교양》이라는 말이 악행의 대명사로 되어버린 사회, 해피한 《교양》 때문에 자라나는 후대들이 제 부모에게서 정신인이나라 속까지 썩어있어 미칠듯한 사회가 《문명》을 떠벌이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높은 우리 제도가 인민의 락원이라면 어린이들의 비명소리가 높은 자본주의제도는 인간생지육이다.

본사기자 정성 일

그가 하면 모범농민이라고 하여 어머니는 흥으로 쓰아죽고 그의 어린 두 딸들을 삼으로 내리쳐 무참히 죽이는 행도 서슴치 않았다.

어느날 밤 마을의 한 건물지붕에 탐종색공화국기를 띄우고 내려오던 처녀를 체포한 원수들은 《악질별정년》을 잡았다고 패쇄를 울리면서 악독한 고문을 들이댔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 바위처럼 굳건한 리의를 포함하여 한 녀성의 일찍이 9명을 무참히 생대장하였

농들은 그를 강기슭으로 끌고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당시 직결협의 여러곳에서 농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사람들이 수백명이나 되었다.

원수놈들의 처벌되는 학살만행은 들으면 들수록 심장의 피를 쫓겨 하고있으며 고통망에 서린 피맺힌 원한을 언해내 잊지 않고 농들에게서 기여이 고개를 친해바로 받아낸 이곳 농들에게 그들의 신념은 더욱 굳세여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 호 혁





# 주체의 위대한 태양을 부르며

지난 4월 10일 인류공공의 국제적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주최한 제네바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체사상 창시하시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발전공포화시키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이 나아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을 받은 그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직업적인 사회활동가로 되어 활약하였다. 그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주제 63 (1974)년 5월엔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 변혁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주체사상에 심취될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위대한 사상의 참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하는 절절한 소망이 솟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그의 소망은 실현되었다.

오카미 게이찌는 어느해인가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절결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주체사상에 관한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 그는 주체사상보급사업을 보다 폭넓고 깊 있게 진척시켜나가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한결같이 합류하여나가고 있는 것을 주체사상인이 나라와 민족, 인류의 운명을 올바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 사무국장 오카미 게이찌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의 청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김정일동지는 겸손해서 저기가 쓴 책들을 출판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내가 대외활동을 하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 손님들앞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있다. 휴식일도 명절날도 없이 일하고있기때문에 나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있다. 당신들은 앞으로 그를 자주 만나게 될것이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오카미 게이찌는 다시금 청원의 말씀을 드렸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문헌들을 학습하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돌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잠시 생각을 하고있다가 마침내 그의 청을 수락해주시었다.

그 순간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는 은 우주를 받아들인것 같은 기분 속에서 회상하였다. 그는 그후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장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청년주체사상연구회 기관지 등을 통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보급전파하였다. 이 나날에 일본의 전국각지에서서 김정일저작연구회 조직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 조선은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나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계속 오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이다. 조선은 확실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특이한 나라이다. 해마다 평양에서 진행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에 올 때마다 느끼곤 하는 감정이이다.

내가 이번엔 확고하게 느끼게 된것은 조선이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는것이다. 내가 왜 조선에 강국이라고 말하는가. 평도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조선에는 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다른 나라들에 없는것이 있다. 자주성이 강하고 배양이 있어서 자기평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힘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힘이

다. 이런 힘을 가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처럼 정신력이 강한 인민은 없다. 여기에 조선인민은 사면팔방에서 조여드는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박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심단결의 힘으로 만단을 극복하여왔다.

지금 조선은 2012년에 강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이미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데 토대하여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조선에는 그러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조선은 이미 경제와 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볼수 있는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쏘아올렸다. 조공이라든 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조선의 막강한 경제적, 과학기술적잠재력에 대해 짐작하였을것이다.

더우기 조선인민이 자기평도자의 강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핵기술과 CNC기술, 야금공학분야에서 급이적인 사면팔방이 일어나고있는 사실은 조선의 막강한 경제기술적도태와 위력, 전반적경제발전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조선은 확고히 첨단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할수 있다. 나는 이번 국제상품전람회에 출품된 CNC공작기계를 비롯한 조선의 여러 제품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느꼈다.

조선의 경제적잠재력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아마 그래서 많은 나라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인류가 나아가갈 앞길을 밝혀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만방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있다. 그들은 국적도 정권도 민족도 생활경위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그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한결같이 합류하여나가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인이 나라와 민족, 인류의 운명을 올바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 사무국장 오카미 게이찌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의 청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김정일동지는 겸손해서 저기가 쓴 책들을 출판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내가 대외활동을 하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 손님들앞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있다. 휴식일도 명절날도 없이 일하고있기때문에 나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있다. 당신들은 앞으로 그를 자주 만나게 될것이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오카미 게이찌는 다시금 청원의 말씀을 드렸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문헌들을 학습하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돌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잠시 생각을 하고있다가 마침내 그의 청을 수락해주시었다.

그 순간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는 은 우주를 받아들인것 같은 기분 속에서 회상하였다. 그는 그후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장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청년주체사상연구회 기관지 등을 통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보급전파하였다. 이 나날에 일본의 전국각지에서서 김정일저작연구회 조직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문헌들을 학습하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돌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잠시 생각을 하고있다가 마침내 그의 청을 수락해주시었다.

그 순간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는 은 우주를 받아들인것 같은 기분 속에서 회상하였다. 그는 그후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장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청년주체사상연구회 기관지 등을 통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보급전파하였다. 이 나날에 일본의 전국각지에서서 김정일저작연구회 조직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문헌들을 학습하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돌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잠시 생각을 하고있다가 마침내 그의 청을 수락해주시었다.

그 순간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는 은 우주를 받아들인것 같은 기분 속에서 회상하였다. 그는 그후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장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청년주체사상연구회 기관지 등을 통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보급전파하였다. 이 나날에 일본의 전국각지에서서 김정일저작연구회 조직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문헌들을 학습하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돌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잠시 생각을 하고있다가 마침내 그의 청을 수락해주시었다.

그 순간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는 은 우주를 받아들인것 같은 기분 속에서 회상하였다. 그는 그후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장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청년주체사상연구회 기관지 등을 통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보급전파하였다. 이 나날에 일본의 전국각지에서서 김정일저작연구회 조직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문헌들을 학습하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돌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잠시 생각을 하고있다가 마침내 그의 청을 수락해주시었다.

그 순간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는 은 우주를 받아들인것 같은 기분 속에서 회상하였다. 그는 그후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장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청년주체사상연구회 기관지 등을 통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보급전파하였다. 이 나날에 일본의 전국각지에서서 김정일저작연구회 조직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문헌들을 학습하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돌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잠시 생각을 하고있다가 마침내 그의 청을 수락해주시었다.

그 순간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는 은 우주를 받아들인것 같은 기분 속에서 회상하였다. 그는 그후 주체사상연구회 연구소장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청년주체사상연구회 기관지 등을 통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보급전파하였다. 이 나날에 일본의 전국각지에서서 김정일저작연구회 조직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 우리의 나라 미술 전시회

이탈리아에서 개막

《평양의 화가들》이라는 주제의 미술전시회가 우리 나라와 이탈리아사이의 외교관계설정 10주년을 즈음하여 이탈리아의 트레비조 쉐다 까메리나 박물관에서 개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체사상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도서들과 우리 나라 미술작품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이탈리아 조선문화협회와 트레비조시청 인사들,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초대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트레비조시 부시장은 이탈리아와 조선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두 나라 인민은 친선의 정을 안고 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시에서 조선의 미술전시회가 진행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전시회를 통하여 조선당과 정부의 관심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조선의 미술을 직접 목격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조선인민과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조선문화협회 위원장

이탈리아조선문화협회 위원장

이탈리아조선문화협회 위원장

# 조선을 반대하는 군사적모략책동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여러 나라 인사들과 단체가 성명, 담화 발표

《푸에블로》호선진, 《KEC-121》사건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그대마다 저들의 범죄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갖은 모략책동을 다하였다.

이런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성명은 남조선피해들이 《천안》호침몰사건 《조사결과》발표대 내용은 《증거물》이라는것이 리에 있지 않고 남측할수 없는 황당한 거짓이라는 데 대하여 까뻐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조가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남조선피해들의 《조사결과》를 규탄하여 2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천안》호침몰사건이 《조선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는 얼도당요없는 남조선당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조사결과》는 전적으로 미제와 그 괴뢰인 남조선당국의 완전한 모략극, 남조국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당국이 남로 장성강화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공화국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켜보려는 어리석은 정치군사적전략으로 부터 출발하여 이번 사건을 남조국화했다는것은 명명백백하다.

미제와 남조선피해들은 1953년 정전협정체결직후부터 지금까지는 근 60년간

남조선침략침몰사건은 절대로 조선의 행위로 볼수 없다. 언젠가 정자가 승려하는것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결백성이 확증될것이다.

남조선침몰사건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적제당에게 《천안》호침몰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연관시키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남조선침몰사건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적제당에게 《천안》호침몰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연관시키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남조선침몰사건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적제당에게 《천안》호침몰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연관시키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남조선침몰사건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적제당에게 《천안》호침몰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연관시키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남조선침몰사건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적제당에게 《천안》호침몰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연관시키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남조선침몰사건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적제당에게 《천안》호침몰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연관시키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남조선침몰사건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적제당에게 《천안》호침몰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연관시키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남조선침몰사건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적제당에게 《천안》호침몰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연관시키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몽골에서

몽골에서 15일 나무심기운동이 벌어졌다. 이 나라 대통령은 수도에서 진행된 나무심기의식에서 각계층 군중이 수습사업에 적극 열차나섰음을 호소하였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수만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었다 한다.

요르단에서

요르단에서 태양에너지개발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마안주에서 2012년까지 200만㎡의 면적에

발전능력이 총 10만kW에 달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올해 1.4분기에 경제가 지난해 같은 9.8% 이상 성장하였다. 19일 이 나라 중앙은행

이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 단편기반적인 언약

최근 미국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 침략적인 《반테로전》의 산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폭탄공격을 하고 있다.

#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

유럽인들 경제형편에 비판